



교 훈
학 원 의 민 주 화
사 상 의 민 주 화
생 활 의 민 주 화

대 학 주 보

개교 47
경희대학교 1949-1998

1998년 6월 1일 (월요일)

THE DAEHAK-JUBO

제1149호 1

□ 기획취재 - 산업체 요구 반영 교육과정 운영 실태 점검

기업형 인재 양성, 치밀한 운영방침 '우선'

C.R.S 인증시험 응시율 저조, 산학인턴쉽 학점인정제 계획에 그쳐

'대학이 취업을 위한 전진기지인가'는 이미 신선한 논제가 아니다. 아무리 대학을 '학문을 위한 상아탑'이라고 해도 대학 졸업자의 반 이상이 취업을 희망하는 실정. 이제 학생들은 대학이 취업을 위한 기회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고 학생들의 이런 요구를 많은 대학들이 이미 수용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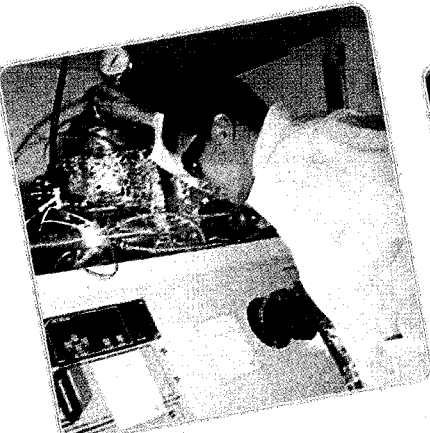
우리학교는 지난 1996년부터 산업체 주요 그룹 임원 18명으로 구성된 '취업지도자문위원회'를 운영, 이 위원회를 통해 기업체가 선호하는 인재상을 파악하는 한편, 1997학년도 1학기부터 교수, 학생 대표, 교육계, 산업체, 사회단체, 언론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과정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사회 및 학생,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 실습 중심의 교육방식이 요구되는 요즘, 산학인턴쉽 제도의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

인성교육 및 진로특강 학점인정제, 사회봉사 학점인정제, 산학인턴쉽 학점인정제 등이 바로 그것들인데 각 제도 별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정보실 주관의 인성 및 진로에



대한 특강을 8회 수강할 경우 1학점을 인정하는 '인성교육 및 진로특강 학점인정제'는 1997학년도 1학기부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 김진홍 목사 등 유명 인사를 강사로 선정, 현재 7차까



지 강의가 개설된 수원캠퍼스는 강의당 평균 280명의 수강생을 확보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2시간 기본교육과 3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1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봉사 학점인정제'는 기본교육 수강 학생

을 기준으로 할 때, 300 ~ 400명 정도가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공립기관 및 산업체의 인턴사원 또는 현장실습 등으로 80시간 이상 일반 학생들에게 1학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7학년도 1학기에 교육과정 운영안을 확정된 '산학인턴쉽 학점인정제'는 현재 양 캠퍼스 모두 구체적인 운영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이준희 수업과장은 "서울캠퍼스에 소속된 학과들의 특성상 산업체 현장실습을 필요로 하는 학과가 적기는 하지만 경영학과는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고 있어 이 제도의 활용 여부에 대해 학과장과 논의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2면으로 이어짐)

'98 하계방학중 학사일정

학적과는 이번 하계방학 중 학사일정을 발표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내 용	일 시
온라인 성적 입력기간	6월 15일~26일
여름 계절학교 수강신청	서울: 6월 22일~23일, 수원: 6월 18일~20일
여름 계절학교 등록	서울: 6월 25일~26일, 수원: 6월 23일~24일
여름 계절학교 수업	서울: 6월 25일~7월 16일, 수원: 6월 29일~7월 21일
여름 계절학교 성적입력	7월 16일~21일
성적 열람기간(학생 개인별)	7월 1일~10일
98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8월 13일~25일
휴·복학원 접수	8월 20일~
복학생 수강신청 기간	서울: 8월 27일~28일, 수원: 8월 4일~26일
후기학비 수납	8월 31일

도서관 오손, 훼손 도서 전시회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의해 훼손된 도서를 전시, 도서관 자료 이용 태도를 바로잡고 자료의 소중함을 이용자들이 하려금 상기시키고자 '도서관 오손, 훼손 도서 전시회'를 연다.

전시기간은 오늘부터 3일까지로 중앙도서관 1층 현관에 전시된다.

수원 기말고사 16일부터

수원캠퍼스 9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정이 확정됐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며 각 학과 사무실에 시간표가 공고되어 있다. 또한 야간에 개설된 과목은 야간수업시간에 시험을 실시한다.

한편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별도의 기말고사 일정을 정해두지 않는다.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경쟁대회 포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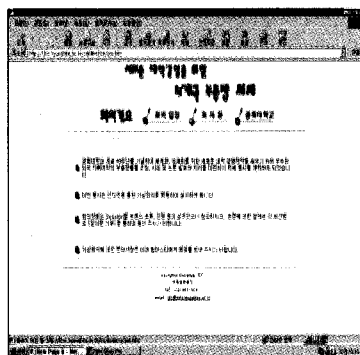
교내시험 1) 서울, 수원 공회 같은 포상 실시 2) 심사위원이 대표자인 참가팀은 포상에서 제외 3) 그중내의 실력이 좋지 않을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주제를 홈페이지(초기화면 포함) 참가를 적극 권장함(특별상 제정) 5) 양의 제한은 있으나 Access speed는 평가기준에 포함됨 상징 총 장 상 : 100만원(2명) 부총장 상 : 50만원(2명) 특별 상 : 30만원(4명)	우 수 상 : 20만원(8명) 장려 상 : 10만원(10명) 실사대상 신청일과 관계없이 1998년 6월 5일까지 제출한 작품은 모두 심사 기준이 됨 작품제출 기한 : 1998. 5. 25~6. 5 작품심사 및 시상 1) 심사기간 : 1998. 6. 8~6. 12 2) 심사기준 · 작품내용 : 자료의 종합성 · 실용성 : 빠른 검색과 실제적 효용성 · 창의성 : 독창적인 아이디어 표현력 · 기술성 : 제작기술, 합리적인 정보 구성 3) 심사방법 : 1998. 6. 22(월)
--	---

문의처: 서울(02-961-0304, 0507) 수원(0331-201-2051-4)

경희대학교 정보처리센터

세계를 알고 일류 대학으로 거듭난다

국내 최초 '새로운 대학 경영을 위한 4개국 부총장회의' 개최



▲ on-line conference 운영을 위해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국제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대학 경영 전략을 세우고자 우리학교가 국내 최초로 주최하는 '새로운 대학 경영을 위한 4개국 부총장 회의'가 오는 8일과 9일,

양 캠퍼스에서 국내 20여개 대학 부총장이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된다.

회의 첫날인 8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는 개회식, 기조연설 및 총 3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조영원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개회식 이후 기조연설 순서에서는 호주 Macquarie 대학교 Di Yerbury 부총장이 'International Network: Technology and Multimedia(국제적인 네트워크: 기술과 멀티미디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주제 발표 시간에는 일본 일명관 대학교 Kazuichi Sakamoto 부총장이 'Re-structuring Japanese

University(일본 대학의 재구성)'라는 주제로, 미국 Syracuse 대학교 Gershon Vincow 부총장이 'Undergraduate Initiative(대학의 독창력)'라는 주제로, 서울캠퍼스 김수근 부총장이 'From Academia to Job Market: Improving the Employability of University Graduates(학계로부터 직업시장까지: 대학 졸업 고용적격자의 개선)'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둘째 날인 9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2개 주제에 대한 부총장 발표가 수원캠퍼스 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Rollin Richmond 부총장과 루이스빌 대학교 Richard Collins 부총장이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기업가적 대학)', 'Fund Raising(자금 조달)'이라는 주제 발표 이후, 참가자들은 경주 관광을 위해 경주로 출발하게 된다.

개교 49주년을 기념, 우수한 외국 자매대학의 부총장들을 초빙해 보다 나은 대학 경영의 전략을 습득할 수 있을 이번 회의는 또한 'On-line Conference'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인터넷 상(http://kdic.kyunghee.ac.kr/conference)에서 오는 3일까지 국내 대학으로부터 이번 회의와 관련한 질의문을 접수받아 회의 기간 중 해당 부총에게 답변을 받을 예정이며 이에 대한 답변은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강남이 기자>

여주대학과 자매결연

지난 29일 치대, 치위생과와 사전 결연식 가져



▲ 지난 29일 열린 우리학교 치대 병원 - 여주대 치위생과 자매결연식

생과와 자매결연식을 맺은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 치과대학 병원 5층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결연식에는 이상대 치대병원장과 김광석 여주대학 학장 등 20여명이 참석했

다. 치대 설립 이후 처음 맺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이후 여주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에게는 우리학교 치대 부속병원에서 임상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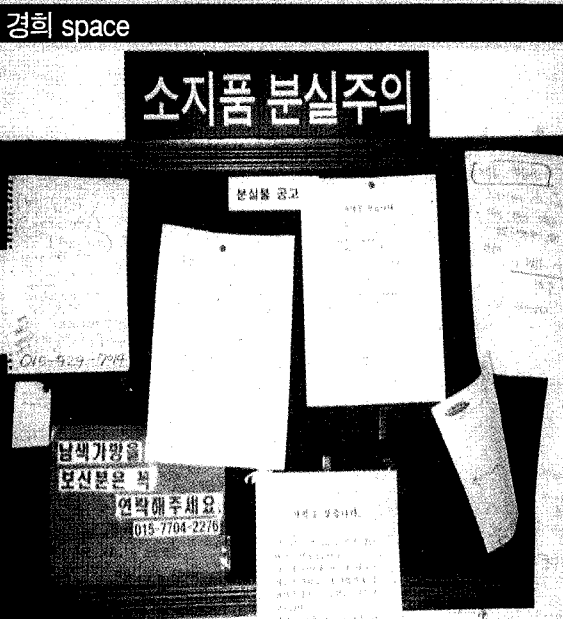
수원 중앙도서관 방중 이용시간 단축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은 오는 6월 22일부터 자료 열람실과 인터넷 열람실의 이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단축 운영한다.

하계 방학중 도서관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시간에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방학기간 중 1,2,4 열람실은 오후 11시까지, 24시간 열람실은 24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호가 학기 종간호입니다



꼬리가 잡히지 않는 학내 도난사고

수원캠퍼스의 도난 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서양학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 봄 농활 기간동안 시가 200여 만원 상당의 펜터업 컴퓨터 일체를 도난 당했다.

그런가하면 가방에서 지갑 등 귀중품이 없어지는 횡수가 빈번해 외대 일어일문학과와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생회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2면으로 이어짐>

지면안내

- 4 시사
- 5 사회
- 6 새정부 여성정책을 비판한다
- 7 학술
- 8 시민정보사회 윤리규범 확립과 전망
- 9 경희의 이름으로
- 10 정전 하영 동문
- 11 Free Style
- 12 웃음



이 주의 Focus

기 말 고 사

기말고사가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매 학기마다 이 맘 때면 도서관 자리가 꽉 차고, 교양과목 도서 대출은 기대하기조차 힘들다.

그러나 보니 전날 도서관 자리를 미리 맡는다는가 대출한 도서 반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몇분 안 되는 벌금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시험은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학문의 깊이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더 이상 알파한 솔책에 학점을 따기 위한 시험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취재부>

시 랑

任 예비 수습기자

- 고현정(영어학부1)
- 김성은(영어학부1)
- 정혜정(영어학부1)
- 최준호(경영대 경영학부1)

다 / 학 / 주 / 보 / 사

사 고

제34회 전국 교고 문예 현상 공모

1. 참가자격
전국 남녀 고등학교 재학생
2. 시범방법
① 1차 : 작품 공모 후 본선 진출을 위한 선정, 개별 통고
② 2차 : 본선 진출자 20명에게 개별 통고
③ 3차 :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여 수상식 개최
3. 공모대상
① 1차 작품 공모 : 1998년 7월 4일(목) 오후 5시
② 1차 심사 발표 : 1998년 7월 31일(금)
③ 1차 통고처는 8월 5일(수)까지 개별 통고
(해당 학교에 발송함)
④ 2차 심사 발표 : 1998년 9월 5일(토) 오전 10시
(경소 주부 학교)
⑤ 최종 심사 및 시상식 : 1998년 9월 5일(토)
4. 시상
대상 : 1명, 상금 및 상장 30만원
우려 : 2명, 상금 및 상장 20만원
佳作 : 4명, 상금 및 부상
5. 공모 부문, 방법
① 1차 작품 공모 부문 : 시(5명), 소설(20명), 단편소설(50명 이상)
② 2차 심사 대상 : 시(5명), 소설(20명), 단편소설(50명 이상)
③ 수상자 : ① 수상자는 본선 진출자 20명 중
② 수상자는 ① 수상자의 1/2 이상으로 선정
③ 수상자는 ① 수상자의 1/2 이상으로 선정
6.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 : 1998년 7월 4일(목) 오후 5시
② 심사위원 : 1998년 7월 31일(금)
③ 심사위원 : 1998년 9월 5일(토) 오전 10시
④ 심사위원 : 1998년 9월 5일(토)
7.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 : 1998년 7월 4일(목) 오후 5시
② 심사위원 : 1998년 7월 31일(금)
③ 심사위원 : 1998년 9월 5일(토) 오전 10시
④ 심사위원 : 1998년 9월 5일(토)

다 / 학 / 주 / 보 / 사

빨간 스티커에 얹힌 이야기

수원캠퍼스 공과대학은 지난해 2학기부터 공대만의 자체 주차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시행전 공대에서는 교직원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스티커에 대한 불발복제가 만연해 교직원들의 주차공간이 보호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교수나 강사들이 공대 부근에서 주차공간을 찾다 수업시간에 늦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일부 강사의 강의 기피현상까지 빚어졌다. 이에 공대는 교내 공식 교직원 주차 스티커와는 별도로 공대만의 '빨간색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공대 수업이 있는 강사, 타 단대 교수에게는 해당 요일에 'GUEST'라는 임시 주차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수원캠퍼스 학생 중 약 40%가 공대생인 점을 감안할 때 300여대를 수용하는 공대 주변의 주차공간으로 공대 모든 구성원의 차량을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대의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공대생의 자연대와 주차장 이용은 저조해 이러한 새 주차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갖가지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있다.

우선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공대를 방문하는 타 단대구성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한 타단대 교수는 최근 주차단속을 당하고서야 공대만의 주차제도에 대해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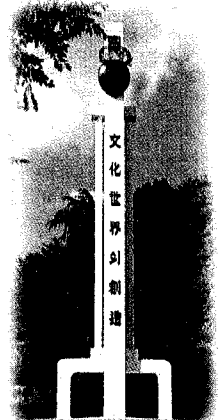
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제도 시행 후 1년이 넘도록 'GUEST' 주차증 없이 주차하면서 제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 허술한 주차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공대 주차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적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의 의식문제이다.

교수 차량에 대한 우선 배려의 차원에서 발급되는 교직원 전용 주차 스티커의 복제가 만연하는 현실은 학생들의 의식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만 무조건적인 회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스승에 대한 예우와 구성원으로서 규칙에 대한 준수라는 두가지 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좀 더 성숙된 의식 수준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류지은 기자>



교시 랑